

엔씨소프트, 사명 '엔씨'로 변경

신작·글로벌 확장 등 성장동력 강화

주총서 사명 변경안 원안 통과
체질 개선 넘어 실행단계 진입
레거시 IP 확장·신규 IP 확보
모바일 캐주얼 사업확대 추진
AI 기반 조직 개편도 병행

엔씨소프트가 사명을 '엔씨(NC)'로 변경하며 브랜드 리뉴얼을 마무리하고, 체질 개선 이후 성장 전략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엔씨소프트는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R&D센터에서 제29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 변경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0년 CI 개편과 미션 재정립으로 시작된 브랜드 리뉴얼이 절차적으로 마무리됐다.

박병무 공동대표는 주총에서 " 그동안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체질 개선에 매진해왔다"며 "이제 약속했던 전략들이 성과로 실현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엔씨는 지난해를 '고성장 전환을 위한 준비기'로 규정하고 구조 개편과 조직 효율화에 집중해왔다. 박 대표는 "과거 관성에서 벗어나 사업 구조를 재정비하고 성장 기반을 다졌다"며 "올해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고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엔씨는 ▲레거시 IP 가치 극대화 ▲글로벌 신규 IP 확보 ▲모바일 캐주얼 사업 확장을 핵심 성장 축으로 제시했다.

박 대표는 "레거시 IP 확장과 신규 IP 확보, 모바일 캐주얼 사업을 통해 예측 가능한 지속성장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R&D센터에서 제2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명 변경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엔씨

다"고 말했다.

신규 IP는 글로벌 시장 확대의 핵심이다. 엔씨는 '신디시티', '호라이즌' 등 다수의 신작을 개발 중이며, 외부 스튜디오 협업을 통해 슈팅·서브컬처 등 새로운 장르로 확장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라인업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캐주얼 사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됐다. 최근 관련 개발사 인수를 통해 역량을 확보하고, 데이터 분석과 AI 기술을 결합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 개별 IP 성과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엔씨는 성장 전략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조직 개편도 병행한다. '생산성혁신본부'를 신설해 AI 기술을 전사 프로세스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원을 콘텐츠 개발에 재투입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임원 보수와 자사주

활용을 둘러싼 주주 질의도 이어졌다. 회사 측은 임원 보수는 성과와 기여도 기반으로 책정되며, 자사주는 직원 동기 부여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보상 체계라고 설명했다.

또 자사주 활용과 관련해서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별도 계획이 없을 경우 소각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사명 변경을 포함해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주요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엔씨는 사명 변경을 계기로 체질 개선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시장에서는 향후 신작 성과와 글로벌 확장 전략이 '엔씨 체제'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주총에서는 임원 보수와 자사주



vitna@metroseoul.co.kr

metro

네이버·스포티파이, 한국시장 협력 확대

스톡홀름 본사서 전략 파트너십 논의
검색·콘텐츠·마케팅 협력 강화 공감

네이버와 스포티파이 경영진이 스웨덴 스톡홀름 본사에서 만나 한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사는 기존 협업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검색·콘텐츠·마케팅 등 전방위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네이버는 26일 네이버 최수연 대표와 스포티파이 공동 최고경영자인 알렉스 노스트롬, 구스타브 소더스트롬 등이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스톡홀름 본사에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사업개발과 마케팅 등 양사 주요 실무진도 참석해 협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양사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과 내비게이션 연동 등 기존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중장기적으로 엔터테인먼트 파트너십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향성을 집중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는 스포티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네이버 검색과 지도 기반 내비게이션에서도 오디오 콘텐츠를 연동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젊은 이용자층에서 나타난 성장세가 협력 확대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네이버에 따르면 스포티파이 제휴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웨덴에 위치한 스포티파이 본사에서 네이버 최수연 대표이사(가운데)와 스포티파이 공동 최고경영자 알렉스 노스트롬(오른쪽), 구스타브 소더스트롬이 공동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양사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했다. /네이버

직후인 지난해 12월 기준 GenZ 세대의 네이버 멤버십 신규 가입자는 전월 대비 17% 증가했다. 양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음악·오디오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결합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사는 향후 검색, 마케팅, 콘텐츠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자 편의성 강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19일부터 스포티파이에 네이버 소셜 로그인 서비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이 적용되며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됐다.

/최빛나 기자

디지털 정보격차 줄고 접근성은 개선

과기부, 디지털포용 주요 지표 발표
취약계층 정보화 수준 5년 연속 상승
웹 접근성 점수 전년보다 3.7점 올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정보격차, 웹 접근성, 스마트폰 과의존 등 디지털포용 주요 지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웹 접근성은 개선되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감소하는 등 디지털포용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일반국민 대비 77.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5년 연속 개선 흐름이 이어졌다. 세부적으로 디지털 역량은 65.9%, 디지털 활용은 80.5%, 디지털 접근은 96.6%로 각각 전년 대비 소

폭 상승했다. 계층별로는 고령층 71.8%, 농어민 80.6%, 장애인 84.1%, 저소득층 97.0%로 조사됐다.

웹 접근성 실태조사에서는 평균 점수가 70.4점으로 전년 대비 3.7점 상승했다. 2021년 이후 상승세가 이어졌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79.0점으로 가장 높았고, 도매·소매업이 65.7점으로 가장 낮았다.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는 78.2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접근성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는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22.7%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2021년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청소년 43.0%, 유아동 26.0% 순으로 높았고, 성인 22.3%, 60대 11.5%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김서현 기자

AIDC 특별법, PPA 허용 놓고 '옥신각신'

비수도권 분산 기대 속 특혜 논란
시민단체·부처 "형평성·기후 역량"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센터(AIDC)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DC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을 향한 첫발을 뒀다.

전력 확보 문제로 부처 간 이견이 팽팽했던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AI 인프라의 비수도권 분산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지만, 시민단체가 '특혜 패키지'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6일(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별법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인프라로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부지 및 용수 확보 등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특례'다.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데이터센터가 한국전



지난해 8월 준공에 나선 SK텔레콤의 울산 AI 데이터센터 조감 이미지. /SKT

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나 LNG 발전사업자와 직접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1GW급 데이터센터 운영 시 연간 전기료만 약 1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PPA 허용은 사업성패를 가를 실질적인 비용 절감책으로 평가받는다.

법안에는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한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전력 공급이 원활한 지방 발전소 인근으로 입지를 유도해 수도권 전력 포화 상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등 업계는 "지방 특례가 현실화되면 수도권보다 지방의 경제성이 부각되어 분산

배치 물꼬가 트일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시민사회의 시각은 냉담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AI 데이터센터 특혜법'으로 규정하고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비수도권이라 해도 환경영향 평가를 더 엄격히 해야 할 데이터센터에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것은 기존 체계를 우회하고 원칙을 허무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LNG 발전사업자와의 직접 PPA 허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업계는 저렴한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참여연대는 이를 "반(反) 기후 정책"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된 PPA를 화석연료인 LNG까지 확대하는 것은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 중에서도 다른 시각이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특정 산업에만 직거래 특례를 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부처 중에서도 다른 시각이 있다.

/김서현 기자

KT, 아이폰17서 '5G SA' 서비스 적용

iOS 26.4 업데이트 후 이용 가능
LTE망 거치지 않고 5G망만 단독 사용

KT는 아이폰에서 5G 단독모드(SA)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5G SA가 적용되는 단말은 아이폰17 시리즈 5종으로, iOS 26.4 업데이트 이후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5G SA는 LTE망에 의존하지 않고 5G망만으로 통신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존 NSA 방식이 LTE와 5G를 함께 사용하는 것과 달리, SA는 모든 신호와 데이터를 5G망에서 처리해 지연시간을 줄이고 배터리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LTE망 장애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KT는 2021년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통해 5G SA를 상용화한 이후 관련 기술과 운영 경험을 축적해왔다. 이후 5G 음성통화(VoNR) 상용화 등 SA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회사는 이번 아이폰 지원을 통해 단말 생태계를 넓히고, 저지연·고신뢰 기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SA 기반 기술 고도화를 통해 향후 다양한 산업 분야와 AI 서비스 확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